

Focus sector: 패션산업 환경 이슈

- 그린워싱과 구체화되는 규제 대응 -

패션 제품 마케팅에 흔히 활용되는 친환경 관련 문구, 인증, 표준 등이 실질적인 환경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경우 이는 그린워싱 리스크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구체화되고 측정 가능한 환경 관련 공시를 수행하고 산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의 친환경 전략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전략 컨설팅사 맥킨지앤컴퍼니는 2023년 패션 산업의 10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그린워싱 제재”를 선정하고, 패션업계는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에서 나아가 새로운 규제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의미있고 신뢰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패션업계에서 문구, 인증, 표준을 활용해 친환경을 브랜드별 제품 마케팅에 치중하는 것에 반해 패션 부문의 자발적인 환경정화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패션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환경인증 프로그램들이 산업계의 그린 워싱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고, 영국 경쟁시장당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영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3곳의 친환경 활동이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국내에서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패션기업들의 의류폐기를 금지하는 입법제정 움직임이 시작되고, 국회는 '섬유패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ESG평가모델'제안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 패션업계는 형식적인 환경인증 획득과 이를 통한 마케팅에서 나아가 지표화된 성과를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패션산업 환경정책 쟁점과 대응방안

가. 패션산업의 환경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

ESG 요소 중 Environment(환경)는 특히 패션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과거부터 패션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의류 폐기물의 급증, 원부자재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으로 공해 발생이 두 번째로 높은 산업군으로 언급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었고, 패션산업계는 그에 발맞추어 ESG 중 Environment(환경)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유럽환경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의 섬유소비는 환경, 기후변화 영향이 네번째로 높은

소비부문에 해당). 그러나 지속가능한 패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옷 자체에 포함되는 폴리머나 플라스틱 섬유 사용의 증가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아닌, 패션 부문에 사용되는 포장이나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패션산업의 핵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을 빗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환경보호단체 체인징마켓파운데이션(CMF, Changing Markets Foundation)은 패션 업계가 의류 생산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의 거대한 증가를 방치하는 동안, 공급망 속에서 움직이는 플라스틱 옷걸이, 가방 등 패션 포장과 소매상점 디스플레이에서의 플라스틱 감축에 주력했고 이 노력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 구체화되는 국내외 정책적 규제

EU는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의무화, 일정수준 이상의 내구성, 재고품 대량 폐기 금지 규정을 제안하고, 세부적으로는 패션 대기업들이 미판매 제품의 매립량을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를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EU의 싱크에버서 의원은 "이런 정보공개가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패션지속가능성 및 사회적책임법(Fashion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Act)를 제정하고, 패션산업이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측정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친환경 섬유 및 폐의류에 대한 자원 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EU 또는 뉴욕주와 같이 의류폐기물 매립 금지 또는 의류폐기물 공개에 관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패션산업계의 대응을 위한 노력

SASB 지속가능성 산업분류 체계(SICS)의 소비재(Consumer Goods)섹터의 Apparel, accessories, & footwear 산업 표준은 패션산업의 환경 관련 회계지표로 '제품 화학물질 관리, 공급망 환경적 영향'을 예시로 들고 그 내용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의류연합의 Higg FEM(Higg Facility Environment Module, 공장의 연간 환경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표준화한 도구)평가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적 자료 평가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의 환경정책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 그리고 구체화되는 국내외 정책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패션산업계가 구체화되고 측정될 수 있는 친환경정책 공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패션산업계의 친환경정책 요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에서 나아가 의류 소비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류 재판매 시장의 성장, 의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패스트패션 산업계에 대한 자정 요청으로 의류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의류 재판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은 폐기물감소를 위한 패션산업의 정책적 환경 규제가 기존 의류산업계의 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국내 규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내 규제를 주목하고 그에 맞춘 국내 패션산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정책 대응과 신사업기회 발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조준오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80

E. jojo@yoonyang.com

김연각

변호사

T. (+82) 2 6182 8718

E. ygkim@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